

## 孤山 時調에 나타난 性情

全 鏐 大\*

### 1. 序

時調는 많은 問題性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까지 國文學界에서 多角的인 論點의 對象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事實이다.

時調가 갖는 問題性을 大別하면

- ① 國民音樂으로서의 時調
- ② 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
- ③ 現代文學으로서의 時調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國民音樂으로서의 時調는 이 땅에서의 時調의 發生과 存立은 民族의 情感을 表出하는 旋律로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祖上들은 모이면 한두 首의 時調를 歌唱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國民皆唱으로서의 音樂인 時調의 傳統을 어떻게 音樂的으로 現代에 살리느냐가 그 問題性이라 하겠다. 이점은 國文學徒가 아닌 音樂徒가 解決할 問題라 생각된다.

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나 現代文學으로서의 時調는 國文學徒에게 주어진 課題라 생각된다. 特히 時調의 現代文學에의 接近은 文學論者가 아닌 文學人으로서 解決해야 할 問題性이며, 이는 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를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國民——士大夫와 庶民——의 意識을 表出함과 同時에 內容的인 面으로 볼 때에도 그 多樣性——美的 범주의 多樣性——은 時調가 갖는 特性이라 할

\* 博士課程, (國文學專攻)

것이다. 時調의 大部分이 忠·孝 등 固定觀念을 노래했든, 安分이라든가 林泉을 노래했든, 그것은 時調만이 가질 수 있는 包容力임은 分明하다. 이러한 傳統的 樣式인 時調가 現代文學의 여러 Genre 속에서 어떻게 그 座標를 維持해 나가느냐 하는 問題가 自然 隨伴되게 된다. 물론 現役 時調인들이 많은 作品을 쓰고 있지만, 現代時調에서는 古時調에서 볼 수 있었던 美意識이나 民族의 情調를 찾아 볼 수 없음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時調가 克服해야 할 現代性이 아닌가 생각된다.

Wolfgang Kayser의 文學研究方法論을 時調研究에 適用하면, 1. 예비적 고찰, 2. 분석의 근본개념, 3. 詩句의 根本概念, 4. 言語形式, 5. 構造, 6. 서정문예의 呈示의 형식, 7. 종합, 8. 리듬, 9. 양식, 10. 서정적 태도와 내면형식의 方法論을 생각할 수 있다.

上記의 10個 항목 중 1. 예비적 考察에 對하여는 文獻學的 前提로 三大歌集인 靑丘永言, 海東歌謠, 歌曲源流가 現存하고 있다는 것은 時調研究에 있어 基本的 作業을 圓滑하게 해 주고 있다. 다시 이를 細分하면 ① 本文批判으로는 <정병욱: 時調文學事典>(1966. 新丘文化社), <심재완: 歷代時調全書>(1972. 世宗文化社), ② 作者의 確認으로는 <심재완: 時調의 文獻的 연구>(1972. 世宗文化社), ③ 成立年代에 對하여는 <조윤제: 朝鮮詩歌史綱>(1937 博文出版社), <이능우: 李朝時調史>(1956. 以文堂) 등의 力著에서 論述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분석의 根本개념의 연구는 素材 研究로서 <정병욱: 꽃과 時調>(思想界 1954. 5)외에는 이렇다할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3. 詩句의 根本概念의 연구도 <정병욱: 時調의 歷史的 形態考>(現代文學, 1958. 9)가 있을 뿐이다.

4. 言語形式에 對한 考察으로는 <유창균: 韓國詩歌 形式의 基調>(가람송수 논문집. 1966. 11), <정혜원: 時調意味構造에 관한 研究>(국어학연구 12집)를 볼 수 있다.

5. 構造에 對한 論考는 정혜원氏의 上記 論文이 이를 代할 수 있다 하겠다. 時調에 對한 本格的 研究라 할 수 있는 서정문예의 呈示의 形式, 종합

리듬, 양식, 서정식 태도와 내면 형식 등에 對하여는 아직 學界에 그 研究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孤山 尹善道의 作品 研究도 上述한 時調 전반에 걸친 研究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尹孤山의 作品에 對한 논고의 概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量에 있어서 相當한 地位를 詩歌界에 잡고 있다 하겠으나 그러나 孤山의 詩歌는 單純히 量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보다도 차라리 그 朝鮮語의 美를 발견하고, 朝鮮語의 藝術的 價値를 作品上에 증명하였다.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p. 341 참조)

품품하고 고담스러운 漢詩文의 故事熟語를 引用한 人工的이고 기교적이다. (이병기, 백철: 국문학전사, p. 145 참조)

孤山의 作品은 청순하고 신선하며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정병욱: 尹孤山論 참조)

言語의 기교미와, 자연의 관조와 戀君 忠國의 情으로 일관하여 있다. (張德順: 韓國文學史 p. 332 참조)

上述한 몇 편의 論點에서 尹孤山의 作品의 特徵은 순수한 국어의 造形美를 살렸고, 생활에 密着된 作品이며 自然愛를 노래하고 있다고 整理할 수 있겠다.

本 論文에서는 주로 漢詩文에서 核心을 이루었던 性情의 問題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그에 따른 特性은 무엇인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 2. 性情과 文學

“詩는 性情을 노래한 것이다”(詩者吟咏性情)라 하여 漢詩文에서 우선 問題되는 것이 “性情”이다.

이땅에는 오래 前부터 漢詩文이 있어왔으므로 우리의 固有詩歌인 時調에도 그 影響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은 “花源樂譜”와 “靑丘永言”에서 보이고 있다. 즉 “詩는 본래 性情에서 나온 것이다.”<sup>1)</sup>

1) 詩本出於性情 而咏歎之於口而爲歌(花源樂譜序)

“詩는性情과分離될 수 없다.”<sup>2)</sup>가 그것이다. 우리의 時調集에서 이와 같은 前提가 보인다는 것은 漢詩文에서 學論되었던 詩論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性情”의 概念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中庸에서 “天命은 性이요, 性은 道이다.”<sup>3)</sup>라는 文句를 發見할 수 있다. 여기에서 性을 天命으로 본 것은 文學的 측면에서 볼 때에 매우 示唆的이라 할 수 있다. 즉 性은 至高의 理念 내지는 作者의 思想이요 生活觀으로 把握할 수 있다.

좀더 性에 關한 具體的인 論述을 보면

“오직 天下의 至誠은 性을 다하는 것이요, 性을 다할 수 있으면, 人性을 다할 수 있고, 人性을 다하면 物性を 다할 수 있다.”<sup>4)</sup>

性은 天命임을 부여한 것인 同時에 다시 性이 誠으로 풀이되고 있다.

“至誠→性→人性→物性”이라는 단계를 밟아 事物의 根源 즉 天理를 把握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性을 誠으로 풀이 한 것이다. 中庸에 “誠이라는 것은 하늘의 道요, 誠하려는 것은 사람의 道다.”<sup>5)</sup>라는 말은 “誠”의 概念을 確實하게 해 준다. “誠”은 “精誠”이라고 풀이 할 수 있으니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진실한 태도를 取하게 하는 人生觀을 形成하게 해 준다.

人生을 진실하고 거짓이 없게 살아 가는 것은 天命을 다하는 것이요 至誠의 境地에 도달한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그러므로 性은 形而上學的이요 物質的인 世界를 超越한 世界에서만 이룩될 수 있는, 即 觀照의 境地에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性과 情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朱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은 性이요, 움직인 것은 情이다”<sup>6)</sup>라고 定義하

2) 惟不離乎性情(靑丘永言後跋)

3)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4)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中庸)

5)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6) 未動爲性 已動爲情

었다. 여기에서 “未動”과 “已動”은 表出된 것과 表出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性이 內的인 것이라면 情은 外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性은 至高의 理念이기에 그것이 直接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情이 나타나게 되는 要素를 이루고 있는 本質이라 할 수 있다. 「四書逸箋」에 있는 다음 말은 이를 分明하게 해 준다.

“性と情은 물결과 물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고요할 때는 물이요, 움직일 때는 곧 물결이니, 고요할 때는 이것이 性이요, 움직이면 情인 것이다.”<sup>7)</sup>

“물은 性이요, 물결은 情”이다. 性이 어떠한 外部的 要素로 말미암아 外部로 表現되었을 때에는 곧 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情보다는 性이 더 優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性에 依하여 情이 變化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人性이 各樣各色이라면 情 역시 多樣化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韓愈는 “性은 仁·義·禮·智·信이요, 情은 喜·怒·哀·懼·愛·惡·欲”이라고 說明하였다.<sup>8)</sup> 仁義禮智信은 人間의 內面的인 것이라면 喜怒哀懼愛惡欲은 外面的인 모습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性과 情을 要約하면

天命→性→情→喜怒哀懼愛惡欲

이라는 圖式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性은 作者의 思想이요, 情은 作品에 나타난 情緒의 世界라 할 수 있다고 본다.

### 3. 孤山의 時調에 있어서의 性情

前章에서 살펴 본 性情을 基本으로 尹善道에게 있어서의 性의 要素는 무

7) 性之與情 猶波之與水 靜時則水 動則是波 靜時是性 動則是情 (辭海·대만상무인서국)

8) 性也者 與生俱生也；情也者 接於物而生也；性之品有上中下三，而其所以爲性

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變容되어 情으로서 表出되었는가를 그의 時調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孤山은 비록 20년 가까운 귀양살이를 겪었고 政敵들의 모진 誹訪 속에서 평생을 살았지마는 失意와 불평에 가득찬 敗北政客의 근색한 모습을 털끝만큼도 그의 생활에서 찾아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어느 城主에도 뒤지지 않은 화려한 生活을 즐겼다고 보인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淸貧孤高니 安貧樂道라는 이른바 儒敎的인 규범의 세계에서 자신을 해방시킴으로써 그의 창작 활동의 始發點을 삼았다고 보인다.<sup>9)</sup>

우리는 尹善道에게서 現實的 苦難을 克服하고 達觀한 근엄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좀 더 具體的인 例證을 그의 傳記的 考察에서 發見할 수 있다.

上疏에서 孤山은 寵臣 李爾瞻이 함부로 나라의 정치를 제멋대로 한 죄상과 영의정 朴承宗과 왕후의 오라버니 柳希奮이 李爾瞻의 非行을 묵인하는 등 입금을 울바로 모시지 않고 나라를 그르친 죄상을 통렬히 비난했던 것이다.<sup>10)</sup>

孤山의 강직한 性品, 不義에 참지 못하는 굳은 意志를 볼 수 있다. 草野에 있는 몸으로 權臣의 惡德 行爲를 비난하고 王께 政事를 바로 잡을 것을 上疏하였다는 것은 이를 말해 준다.

孤山의 憂國衷情은 병자호란 때에도 볼 수 있다. 孤山이 50세 되던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王室이 모두 피난하였다는 말을 듣고 家僕을 거느리고 江華로 향했다. 그러나 강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화가 함락당한 후라, 뱃머리를 다시 남한산성으로 돌렸다. 뱃길에서 仁祖가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孤山은 俗世를 잊고 탐라로 갈 결심을 했다.<sup>11)</sup>

마치 J. Milton이 本國에 內亂이 일어났다는 消息을 듣고 이탈리아 旅行

者五(仁義禮智信), 情之品有上中下三, 其所以爲情者七(喜怒哀懼愛惡欲) (辭海, 대만인서국)

9) 정병욱: 尹孤山論(月刊文學 9, 1969. 7)

10) 韓國의 인간상 5, p. 243 참조(新丘文化社 1966. 4)

11) 韓國의 인간상 5, pp. 246-7 참조.

을 中途에서 포기하고 歸國한 것과 같은 충정을 알 수 있다. 國運이 累卵之危에 處해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混亂 속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孤山의 品性を 짐작할 수 있게 한다.

孝宗 九年 四月의 일이었다. 고산은 承政院이 임금의 충명을 막아서 가림을 통렬히 논박했다. 이어서 같은 南人인 鄭介濟의 書院事件으로 말미암아 고산은 홀로 여러 사람의 집중적인 원망을 샀으나, 드디어 六月에는 鄭介濟의 書院을 철폐하고자 하는 宋時烈·宋俊吉의 죄를 통박하는 疏文을 올렸다. 이 상소때문에 그에 대한 참소가 빗발치듯 집중되었다.<sup>12)</sup>

역시 孤山의 강직한 性品을 알 수 있다. 同調者가 있든 없든 事理에 어긋나다고 하면 참지 못하는 강한 內心을 發見하게 된다. 이러한 天性에는 天命을 다하려는 굳은 意志밖에는 있을 수 없다. 個人的 榮達이라든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孝宗이 죽음에 따라 그의 繼母后인 趙大妃의 服喪問題가 자연 뒤따르게 되었다. 이때 西人들은 孝宗이 仁祖의 次子이므로 趙大妃의 服喪은 暮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孤山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니 長子와 다름 없는 것이라 하여 三年說을 극력 主張했던 것이다. 그의 과격한 禮疏는 마침내 반대파의 공박을 받게 되어 그가 74세 되던 해 4월에는 그의 禮疏가 불살라지는 동시에 또다시 三水에 귀양가지 않을 수 없었다.<sup>13)</sup>

勿論 古人의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 하겠으나 孤山이 流配生活을 하게 된 原因은 지나치게 不義에 항거하였기 때문이다. 包容力로 받아 들이는 姿勢가 아니라 굵은 것을 부러지더라도 꺾으겠다는 굳은 忠節 때문이다. 그러나 流配地의 生活을 조금도 不便하다고 느끼지 않고 자신을 한탄하지도 않았다.

天命은 性이라 하였으니 孤山이 天命을 다함에는 不便도 不平도 存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직 不義를 없애겠다는 강한 憂國心이 孤山에게 있어 性이라 把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孤山의 이러한 性이 어떻게 情으로 昇華되었는가를 作品을 例로

12) 한국의 인간상 5. p. 251.

13) 한국의 인간상 5. p. 252.

들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例 1〉 遺懷謠

- ① 슬프나 즐거오나 울타흐나 외다흐나  
내몸의 히을 일만 달고 단글 뿐이언뎡  
그 받거 너나른 일이야 분별홀줄 이시라
- ② 내 일 망녕된 줄 내라흐야 모물손가  
이 막음 어리기도 님 위훈 타시로쇠  
아뒤 아뒤리 닐러도 님이 헤여 보쇼셔.
- ③ 檄城 鎖胡樓 밭기 우리 예는 더시내야  
므음 호리라 晝夜의 흐르는다  
님 向훈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로누다
- ④ 외훈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히 그린 뜰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뒤셔 외기러기는 울고울고 가누니
- ⑤ 어버이 그칠 줄을 처업부터 아란마는  
님군 向훈 뜰도 하눌히 삼겨시니  
眞實로 님군을 니즈면 不孝가 너기라.

遺懷謠는 光海君 때 上疏하였다가 慶源에 流配되었을 때인 32세 때의 作品이다.

젊은 血氣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던 傳記的 事實에서 드러난 忠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例①의 “내 몸의 히을 일만 달고 단글 뿐이언뎡”은 天命을 다하겠다는 굳은 意志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初章 둘째 句의 “울타흐나 외다흐나”이다. 權臣들이 反對를 하진, 處刑을 加하던 自身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을 때는 주위의 어떠한 反對가 있더라도, 一身上에 어떠한 괴로움이 오더라도, 行하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다.

例②의 中章 “이 막음 어리기도 님위훈 타시로쇠”에서 임금에게 忠情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어리기도”는 그냥 “어리석다”는 것으로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어리다”는 가장 純眞無垢한 狀態라 할 수 있겠다. 例①의 初章 “슬프나 즐거오나 울타흐나 외다흐나”와 같이 環境의



支配를 받지 않는 순수한 情의 世界라 할 수 있다고 본다. 例③의 “님 向훈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로는다.” 例②의 “아버이 그린 뜰은 만코만코 하고하고”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不義를 超克하려는 것은 오직 님 즉 光海君을 爲한 것이 나아가 국가를 위하겠다는 愛國心の 發露인 것이다. 그러나 忠을 다하려 할 때는 갖은 모함과 참소가 따르게 마련이다. 例②의 “아리 아리 님이 헤여 보쇼셔”에서 自身の 義가 反對派에게 曲解됨을 보고 最高 決定權者인 임금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仁·義·信을 다하지 못하는 좌절감과 회의는 例③에서 “楸城 鎮胡樓 밧기 우리 예는 더 시 내야, 므음 호리라 晝夜의 호르는다”로 表現되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에 자신의 애끓는 悲哀를 依托한 것이다.

例⑤는 遺懷謠의 結章인 同時에 尹孤山의 性의 世界의 集約이라 할 수 있다. 아버이와 임금을 同一하게 보고, 人間으로서 아버이에게 孝를 다하는 것은 곧 天命을 다함과 같다. 그러므로 임금께 忠을 다하지 않음은 不孝인 것이다. 즉 人性으로서의 孝가 天性인 忠으로 表出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孝가 人性의 本能으로서 存在한 것이라면 忠 또한 “하늘히 삼겨시니”로 天命으로 賦與된 것임을 認知하게 된다.

〈例 2〉 雨後謠

구름비 개단말가 호리던 구름 걸단말가  
 압내회 기픈소희 다 뭍앗다 흥논손다  
 眞實로 뭍디운 뭍아시면 갠진 시서 오리라.

混濁한 세상을 한탄하고 하루 빨리 깨끗해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이다. 이러한 心情은 그 跋文에서 진실로 비온후에 개고 구름이 걸히고 시냇물이 전과 같이 맑아진다. 어찌 仁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sup>14)</sup>라고 孤山은 술희하고 있다. 그의 마음이 純粹하기 때문에 世上의 濁함이 ‘잘 보이었고 맑은 내’에서 “갠진 시서 오리라”는 안타까움을 吐露하고 있다.

〈例 3〉 夢天謠

14) 苟能如斯雨之晴 如斯雲之捲 如斯前川之選請 則吾修敢不歸仁乎

- ① 상해런가 꿈이런가 白玉京의 올라가니  
玉皇은 반기시나 群仙이 꺼리노다  
두어라 五湖烟月이 내分일시 올랐다.
- ② 붓꿈의 꿈을 꾸어 十二樓에 드러가니  
玉皇은 우스시되 群仙이 꾸진노다.  
어즈버 百萬億 蒼生을 어느 결의 무르리
- ③ 하늘히 이저신제 므슴 衛로 기워낸고  
白玉樓 重修홀계 엇던 바치 일워낸고  
玉皇과 슬와 보자 흥더니 다 문항야 오나다.

夢天謠에서는 임금께 上疏를 하고 忠諫을 하였지만 임금께 주달되지 못하고 奸臣들의 비난만을 샀던 當時의 政局을 적나라하게 描寫하고 있다. 特히 憧憬의 發露는 例③의 “하늘히 이저신제 므슴 衛로 기워낸고, 白玉樓 重修홀계 엇던 바치 일워낸고”라고 暗喩로서 表相되고 있다. 玉皇은 반기시고 웃으시고 있으나 群仙이 꺼리고 꾸짖어, 하고 싶은 말을 玉皇께 사퇴지를 못하여 五湖烟月에서 自然과 더불어 살려고 하나 역시 百萬億 蒼生의 고달픔이 눈에 어리어 비쳐 自然 속에서도 便하지 못하는 心中을 엿볼 수 있다. 政界에 있으나 自然에 있으나 임금을 爲하고 百姓을 爲하는 忠과 義 그리고 測隱之心은 그대로 變함없이 남아 있다.

〈例 4〉 初筵曲

- ① 집은 어이항야 되얼노다 大匠의 功이로다  
나무는 어이항야 고든다 고조줄을 조참노라  
이집의 이뜰을 알면 萬壽無疆하리라
- ② 술은 어이항야 도호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항야 도호니 鹽梅 딸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뜰을 알면 萬壽無疆하리라

〈例 3〉에서는 人之性을 把握한 態度라면 〈例 4〉는 物之性을 理解하려는 孤山의 뜻을 볼 수 있다.

집이 人間이 살기에 便하고 굵은 나무가 곧은 기둥이 된 것은 나라가 平安하고 人間世에 義가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기 爲해서는 大匠과 먹고자들이 必要한 것이니, 곧 有能한 臣下와 忠義로 가득차 있는 人

才가 있어야 함이다. 이것이 尹孤山이 把握한 物性이라 할 수 있다.

결국 孤山에게 있어서 天性이나 人性이나 物性이나 다 한결 같이 義로서 연결되어 있고 忠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例 5〉 漫興

- ① 누고서 三公도곤 낫다향더니 萬乘이 이만향라  
이제로 헤어든 巢父許由 | 낙듯머라  
아마도 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 ② 江山이 도타 혼들 내 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향야도 히울 일이 업세라

孤山은 政界에 담겨 있던 林泉에서 閑游를 하건 그것은 모두 聖恩이요, 天命이다. 그러므로 “님군 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라고 忠으로 表出된다. 孤山의 義는 五友歌에서 物性을 把握하는 것으로 集約되어 나타난다.

〈例 6〉 五友歌

- ① 내버디 몇치나 향니 水石과 松竹이라  
東山의 돌오르니 귀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스 밧과 또 더향야 머엇향리
- ② 구름빗치 조타향나 검기를 즈로훈다  
님람소터 맑다향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출 뉘 업기는 물론인가 향노라
- ③ 고즌 므스 일로 뛰머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향야 프르는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향노라
- ④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덤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투느다  
九泉의 불회 고즌 줄을 글로향야 아노라
- ⑤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느다  
더러코 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 향노라
- ⑥ 차근 거시 노피 며서 萬物을 다 비취니  
밤푸의 光明이 너만 향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향니 내 벌인가 향노라

水, 石, 松, 竹, 月의 物性은 “조코도 그출늬 업기느” “변티 아닐슨” “눈 서리물 모르느다, 九泉의 불회 고든”, “꽃기는 늬 시기며, 四時에 프르니”, “萬物을 다 비취니, 보고도 말 아니하느”로 把握되었다.

水石松竹은 가장 바람직하고 義의 結晶體이나 反面에 구름, 바람, 꽃, 풀은 隨時로 變하는 物性을 가지고 있다. 形而下學의인 世界에서는 구름빛이 아름답고, 꽃이 예쁘게 피었고, 바람이 시원하고, 풀이 싱싱하다고 하지만 形而上學의인 觀點으로 볼 때에는 可變的인 것이다. 天命을 다함에는 不變的인 物性이 必要한 것이다. 이것이 尹孤山이 作品에서 追求한 美意識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본다.

物性에서 人性을 파악하고 다시 天性으로 集約되는 모습을 孤山의 다음 時調에서 볼 수 있다.

〈例 7〉 秋夜操

蒼蠅이 쏘더시니 파리채는 노하시되  
落葉이 늦거오니 美人이 늘글게고  
맹슴픽 들밧치 몹으니 그물 보고 노노다.

初章에서는 物性을, 中章에서는 人性을 終章에서는 天性을 말하고 있음을 본다.

〈例 8〉 漁父四時詞

- ① 뽕결이 흐리거든 밭을 싣다 엇더허리  
吳江의 가자하느니 千年怒濤 슬플로다  
楚江의 가자하느니 魚腹忠魂 남글세라
- ② 자라가는 가마귀 멀날치 디나거니  
압길히 어두우니 暮雪이 자자떨다  
鵝鴨池를 늬 터서 草木慚을 싣들던고
- ③ 흰이슬 발견느네 불근돌 도다온다  
鳳凰樓 渺然하느니 淸光을 늘을 줄고  
玉兔의 띠는 藥을 豪客을 먹이고자
- ④ 醉학야 누언다가 여홀 아래 누리려다  
落紅이 흘려오니 桃源이 갓갓도다  
人世仁廳이 언에나 兀렸느니

위의 引用 作品은 孤山의 漁父四時詞 가운데 그의 性이 直接 드러난 것을 가려 본 것이다. 例①에서는 混濁한 世上을 한탄하면서 忠을 잊지 않는 作者의 근엄한 자세를, 例②에서는 丙子胡亂의 恥辱을 잊지 못하는 義憤을 例③에서는 變君之情을 例④에서는 혼탁한 世上을 떠나 林泉을 즐기려는 自然愛를 볼 수 있다. 特히 例④에서 볼 수 있는 自然愛는 物性, 人性, 天性을 超越한 美의 世界다. 그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의 歸結地는 곧 自然이 될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앞에서 引用한 五友歌도 性이 昇華되어 自然愛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崇高한 自然愛가 나타난 몇 편의 作品을 例로 들고자 한다.

〈例 8〉 漫興

- ① 보리밥 듯누물을 알마초 먹근 後에  
바윗긋 聶ᄃᆞᆫ 술ᄃᆞ치 노니노라  
그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물줄이 이시라
- ②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득실사  
人間萬事를 혼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두토리 업슨 江山을 덕히라 하시도다.

人世를 遠觀한 超然한 자세를 볼 수 있다. 이것은 現實 도피로 은둔사상이라 볼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物性和 人性을 초월한 高孤함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例 9〉 夜深謠

보람 분다 지게 다다라 밤들거다 불 아사라  
벼개에 히즈러 술ᄃᆞ치 쉬어보자  
아히야 새야 오거든 내 줌와 세와스라

〈例 8〉보다는 濃度가 짙은 自然愛를 볼 수 있다. 그의 山中新曲 중 朝霧謠에서도 같은 樣相을 發見하게 된다.

〈例 10〉 朝霧謠

月出山이 넘더니마는 띄운거서 안개로다  
天王 第一峯을 一時에 ᄃᆞ리와다

두어라 히 피던 휘면 안개 아니 거드라

성이 完全히 표백되어 情으로 昇華되었음을 볼 수 있다. 天命은 自然愛 속 에 머물러 있음을 直感할 수 있다. 이것이 孤山이 取한 美學의 世界요 또한 現代에 와서 松江보다는 孤山의 詩情을 순수시로서 높이 評價하는 理由라고 본다. 漁父四時詞 가운데서 昇華된 情의 世界, 自然愛를 더 보겠다.

〈例 11〉 漁父四時詞

- ① 암개에 안개 짓고 달외히 히 비핀다  
 밤물은 거의 디고 난물이 미러온다  
 江村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 ② 우는 거시 벉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숨가  
 漁村 두어집이 닛속의 나락돌락  
 말가호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뛰노는다
- ③ 낙시줄 거러노코 蕙窓의 들을 보자  
 학마 밤들거나 子規 소리 몹게 난다  
 나은 興이 無窮하니 갈길홀 니것맛다
- ④ 연넝희 밥싸두고 반찬으란 장만마라  
 靑籜筍은 싸 있노라 綠蓑衣 가져오냐  
 無心호 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 ⑤ 水國의 7술허 드니 고기마다 술져일다  
 萬頃澄波의 술카지 容與하자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 ⑥ 그러기 멧는 밧기 못보면 외 뵈는교야  
 낙시질도 학려니와 取호 거시 이興이라  
 夕陽이 바이니 千山이 錦繡로다
- ⑦ 간 밤의 눈 갠 後에 景物이 달란교야  
 암희는 萬頃琉璃 뒤희는 千疊玉山  
 仙界가 佛界가 人間이 아니로다
- ⑧ 어와 저프러 간다 寔惠이 만당토다  
 7는 눈 뿌린 길 불근 곳 훗터던더 흥치며 거러가서  
 雪月이 西緣의 넘도록 松窓을 비겨이자

例①과 ②에서는 自然을 觀照하는 孤山의 淸澄한 눈길을 엿볼 수 있고, 例③에서는 “갈길을 니것맛다”에서 自然에 沒入한 心境을 알 수 있다. 이어

서 例④에서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라고 主客이 一體가 된 自然 合一이요 沒我的 境地를 느끼게 된다. 例⑤에서는 完全히 人世를 떠난 孤高한 자세를 알 수 있고, 例⑥은 自然의 佳景을 즐기는 孤山의 心中이다.

尹善道の 性の 昇華는 自然愛뿐만 아니라 音樂愛로도 나타난다.

〈例 12〉 古琴詠

벗었던 가얏고를 즐언저 노라보니  
清雅호 뱃소리 반가이 나노고야  
이 曲調 알리 업스니 집겨 노하 두어라.

〈例 13〉 臚伴琴

소리는 威 이신들 只음이 이리하랴  
只음은 威 이신들 소리톨 누 하느니  
只음이 소리에 나니 그들 도하 하노라.

孤山이 音樂을 아끼고 있으며 또한 藝術至上主義的 편모를 위의 두 篇의 時調에서 볼 수 있다.

그가 음악을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것은 夫春洞과 金鑽洞의 生活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의 音樂에 對한 信念을 다음에서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고산은 은둔생활이나 귀양살이 속에서도 음악을 매우 즐겼다. 만년에 三水에서 귀양을 살고 있을 때도 그는 가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趙綱이 그를 위해 충고했다. 「가락과 詩歌를 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리니 그것은 어찌 정통적 학문이라 하겠느냐?」 그러나 고산은 음악에 대한 굳은 신념을 피력하고 학자에게는 음악이 꼭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성음이란 것은 천지조화의 미묘한 힘이 유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 천지조화의 미묘한 힘의 유통은 영원히 불변하니 孟子가 이른바 “今樂이 古樂과 같다” 함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만약 술이 거나하여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음탕하다 해서 그것을 폐한다면, 목맨다고 밥안 먹거나 죽이 싫다고 양념까지 안먹는 것과 같지 않을까. 좋은 음악을 조용히 듣고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면서 즐기되 음탕하지 않고 서러워하되 마음을 상하지 않을 만큼 급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은 中臚의 길을 터득한다면 음악이 예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朱子의 琴詩에 “中和의 기운을 靜養하고, 분노 탐욕한 마음을 지워 버린다.”라는 글귀를 나는 항상 깊이 음미한다. 그리하여 후배학도들에게 정양하는 가운데 음악으로써 분노를 지워 버린다면 이역시 주자의 학도라 하겠다고 일러 준다.」<sup>15)</sup>

15) 한국의 인간상 5. p. 259.

藝術에 對한 확고한 信念이다. 藝術의 屬性인 普遍的 眞理를 力說하며 아울러 藝術의 限界를 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즐기되 음탕해지지 않고, 서러워하되 마음을 상하지 않은”은 樂而不淫 哀而不悲의 精神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다. 孤山이 性을 情으로 昇華시킴에도 哀而不悲가 지켜졌고, 特히 自然愛를 表出함에도 樂而不淫이 지켜졌음을 그의 作品에서 볼 수 있다.

孤山은 藝術의 限界性を 다음과 같이 作品으로 定義하였고 또한 그 職能을 表現하였다.

〈例 14〉 罷筵曲

술도 먹으려니와 德 업스면 亂하느니  
 춤도 추려니와 禮 업스면 雜되느니  
 아마도 德禮를 덕히면 萬壽無疆하니라

藝術의 屬性인 快樂과 教訓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는 次元높은 藝術至上主義다.

樂而不淫만 지켜진다면 거기에는 德禮가 있게 되므로 人性을 해롭힐 까닭은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 4. 孤山 時調의 特性

孤山 時調의 特性 중, 用事와 寫景은 어떠한 樣相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漢詩文에서 주로 問題가 되었던 用事が 時調에서는 어떻게 表出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固有의 文學 Genre의 特性을 規定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孤山の 作品 중 用事が 있는 語句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巢父詩由(漫興 4)
- ② 濯纓歌(漁父四時詞 春詞 5)
- ③ 烟江疊嶂(漁父四時詞 夏詞 1)
- ④ 吳江 千年怒濤(漁父四時詞 夏詞 4)



- ⑤ 楚江 魚勝忠魂(漁父四時詞 夏詞 4)
- ⑥ 鶴髮(漁父四時詞 夏詞 5)
- ⑦ 雷澤 讓居(漁父四時詞 夏詞 5)
- ⑧ 水調歌(漁父四時詞 夏詞 6)
- ⑨ 欸乃聲中(漁父四時詞 夏詞 6)
- ⑩ 桑大夫(漁父四時詞 夏詞 8)
- ⑪ 野渡橫舟(漁父四時詞 夏詞 9)
- ⑫ 澗邊幽草(漁父四時詞 夏詞 9)
- ⑬ 玉兔 먼노藥(漁父四時詞 秋詞 7)
- ⑭ 西風塵(漁父四時詞 秋詞 8)
- ⑮ 귀시서(漁父四時詞 秋詞 8)
- ⑯ 女蘿衣(漁父四時詞 秋詞 10)
- ⑰ 鵝鴨池(漁父四時詞 冬詞 6)
- ⑱ 巨口細鱗(漁父四時詞 冬詞 7)
- ⑲ 滄洲(漁父四時詞 冬詞 9)
- ㉔ 七里 여울 羊皮옷(漁父四時詞 冬詞 9)
- ㉕ 三千六百 낙시질(漁父四時詞 冬詞 9)
- ㉖ 五湖烟月(夢天謠 1)
- ㉗ 감긴 시서(雨後謠)

大部分 用事의 典故는 故事에서 많이 와 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寫景에 用事가 쓰인 것이 아니라 性의 表現에 있어 使用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愛國이나 政界를 떠나 自然에 묻히어 살겠다는 意志의 表現을 代하고 있다.

이것은 漢詩文에서 볼 수 있었던 用事의 職能이 變하였음을 말해 준다. 漢詩의 詩作法이 우리의 固有 詩歌인 時作法에 그대로 受容던 것이 아니라 變容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哀而不悲의 원칙이 지켜졌다.

孤山 時調의 또하나의 特性은 寫景에 있어 表現美을 살린 것이다. 漁父四時詞 中에서 몇 개의 例를 보겠다.

東風이 건든 부니 湄결이 고이 닐다  
東湖를 도라보며 西湖로 가자스라

압외히 더나가고 될외히 나아온다.

우는 거시 벽구기가 푸른 거시 버들숨가  
漁村 두어집이 낮속의 나락들락  
말가훈 기픈 소희 온갖 고기 뛰노는다

압개에 안개 짓고 될외히 히 비원다  
밤물은 거의 디고 난물이 미러온다  
江村 온갖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夕陽이 도타마는 黃昏이 갓갓거다  
바회 우회에 구븐길 술아래 빗겨있다  
碧樹鶯聲이 곧곧이 들리는다.

그리기 멧는 밧피 못보던 외 뵈는고야  
낙시질도 학려니와 取환 거시 이곳이라  
夕陽이 보이니 千山이 錦繡로다

간밤의 눈개 後에 景物이 달란고야  
압회는 萬頃琉璃 뒤히는 千疊玉山  
仙界가 仙界가 人間이 아니로다.

前章에서도 言及된 바와 같이 物性을 파악한 後의 觀照的 자세가 보이고 있다. 또한 그 表現에 있어서는 樂而不淫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自然의 神秘 속으로 沒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勿論 表現的 效果로서 순수 국어를 살린 造形美도 그 특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점 또한 그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 5. 結

앞에서 孤山の 性情의 世界와 그 作品의 特性을 살펴 보았다.

그 結果 다음과 같은 몇개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本稿에서는 尹善道의 作品에서만 考察하였지만 앞으로 다른 作家의 時調, 더 나아가서는 歌辭나 또는 우리 固有의 Genre에 적용시킨다면 국문학의 內容의 表現의 特性을 理解하고 規定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한다.

1. 孤山의 性は 憂國哀情이다.
2. 孤山의 作品에 있어서의 情은 自然愛 내지는 藝術至上主義로 表出되었다.
3. 性이 情으로 昇華되었다.
4. 物性, 人性, 天性을 把握하고 高次的인 世界를 追求하였다.
5. 形而上學的 美意識을 追求하였다.
6. 漢詩文에 쓰이던 用事의 職能을 變容시켰다.
7. 用事에서는 哀而不悲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8. 寫景에서는 物性을 파악하고 樂而不淫을 지켰다.

### 參 考 文 獻

尹善道：孤山遺稿(서울大學校本)

鄭炳昱：時調文學事典(新丘文化社, 1966. 10)

新丘文化社：韓國의 人間像 5(1966. 4. 20)

李秉岐：국문학전사(新丘文化社, 1960. 6)

鄭炳昱：尹孤山論(月刊文學 9號, 1969. 7)

趙潤齊：國文學概說(東國文化社, 1958. 3)

韓國詩歌史綱(乙酉文化社, 1958. 5)

崔信浩：詩歌에 있어서의 性情의 問題(聖心女大 論文集, 6집, 1975)

玄岩社：韓國의 명저(1969. 9)

張德順：한국문학사(同和文化社, 1975. 12)